



하루에 하나

2026.7.9

JUL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달러 환율

1,498.50원 (-29.70원)

KOSPI

7,246.79 (+409.52, -5.35%)

KOSDAQ

785.0(-46.23, -5.56%)

국고채 10년 금리

4.245(+0.032%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Special Report

7월 자산배분의 창(窓) AI는 결국 돈의 게임이다 [이영주]

Global Asset Strategy

신흥국 전략 인도 이슈 업데이트: 중장기 정책 방향 재확인 [김근아]

기업분석

LG유플러스 2Q 프리뷰 - 역대급 실적 달성 전망, 주가 너무 싸 [김홍식]

코웨이 돈보이는 동남아 사업 성장 [박중대]

세아베스틸주 최근 주가는 급락했지만 영업실적은 양호할 전망 [박성봉]

풍산 올해 예상 실적대비 과도한 저평가 구간 [박성봉]

에이직랜드 하이닉스가 선택한 eSSD 파트너, 방향은 정해졌다 [권태우]

NC 현재도, 미래도 밝다 [이준호]

팬오션 2Q26 Pre: 너무 싼니다 [안도현]

산업분석

자동차 완성차 2분기 프리뷰: 주가 선반영. 하반기 모멘텀 기대 [송선재]

글로벌리서치

버라이즌 내년 이후 CAPEX 확대에 주목하세요 [김홍식]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유니트리 IPO가 이끌 재평가 [송예지]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삼성물산, KB금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 삼양식품, 키움증권, 코스맥스, 이수화학

2026년 7월 9일 | Global Asset Research

Asset Allocation

Compliance Notice

본 조서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7월 자산배분의 창(窓)

시는 결국 돈의 게임이다

AI 생태계의 지속성과 이를 가능하게 할 핵심 요소 세 가지

최근 최근 금융시장은 AI 인프라 투자와 반도체 중심으로 AI 성장 스토리를 반영. 다만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되면서 AI 투자 사이클 정점 통과와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함께 확대. 이제는 단기 주가 흐름보다도 AI 생태계의 지속성 여부와, 이를 가능하게 할 핵심 요소에 대해 살펴볼 필요. 핵심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판단.

(1) 애플리케이션의 수익화 (Monetization) 여부

AI 에이전트가 확산될수록 토큰 사용량이 늘고, AI 모델 호출과 GPU,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질 수 있음.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기업들의 AI 서비스를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 여부”가 중요.

(2) AI 산업을 뒷받침하는 자본시장과의 연결성

AI 산업은 막대한 설비투자가 반복되는 대표적 자본집약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음. 이제는 기업의 자체 현금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채권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인프라 금융, 사모신용 등 다양한 자금조달 방식이 활용되는 중. 이 과정에서 AI 산업은 기술 기업, 금융 시장, 사모신용 시장이 연결된 투자 트라이앵글 구조가 형성. 세 축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고 있어 어느 한 축에서의 자금 공급 불발은 투자 시스템 전반으로 영향 줄 가능성.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는 AI 기업간 투자와 자금조달에 있어 적신호가 커졌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부추긴 것이기도 함. AI 기업 경쟁력은 기술뿐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으로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가가 중요

(3) 자본의 가격인 자본비용 부담

미국은 아직 중립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실질금리가 상승. 시장은 미국의 재정 확대, 인플레이션, 민간 기업 투자 환경 등을 고려해 더 높은 할인율을 요구. 이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자본비용의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야기. 회사채, PF, 인프라 금융, 부동산, LBO 등 자금 의존도 높은 영역은 그 영향이 빠르게 커질 수 있어 기업들의 신규 투자와 자산평가 기준도 변화될 수 있음

현재로서는 유럽이 먼저 경험하는 통화정책 변화와 그 경제적 영향을 하나의 선행 지표 (Proxy)로 판단하면서 향후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정책 경로를 관찰할 필요

상기 관점에서의 7월 자산배분 전략

AI 핵심 자산은 여전히 포트폴리오 중심축으로 유지할 필요. 단, 기업간 투자 계획과 자본조달 여부를 같이 살펴봐야 함.

AI 산업의 성장 스토리는 이어지더라도 시장에는 이미 높은 레버리지와 포지셔닝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

순환매 영역은 보완적으로 활용하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단기채·달러·우량 크레딧 등을 함께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



Analyst 이영주 leeyoungju@hanafn.com
선임연구원 하형민 hyeongmin.ha@hanafn.com

2026년 7월 9일 | Global Asset Research

인도

신흥국 전략

인도 이슈 업데이트: 증장기 정책 방향 재확인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회담 세부 내용의 차이는 있으나 첨단 제조업, 인프라, 재생에너지 세 축으로 수렴

인도 정부는 최근 일본 및 러시아와 연달아 회담을 진행했다. 일본과는 AI, 방산, 고속철도 등 인프라 개발과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협력을 논의했으며, 러시아와는 첨단 제조업, 핵심 광물·금속, 녹색수소·ESS 분야와 관련한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각 국가와의 협력 분야는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큰 틀에서는 첨단 제조업 육성, 인프라 확충,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세 가지 축으로 수렴된다. 이들 분야는 이미 예산안과 주요 정책 발표를 통해 인도 정부의 증장기 성장 전략에서 우선순위로 제시되어 온 바 있다. 주요국과의 연이은 회담을 통해 기존 정책 방향이 유지되고 있으며, 해당 정책들이 대외 협력과 실제 투자 프로젝트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가 해당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첨단 제조업은 인도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입지를 한 단계 더 강화하기 위한 핵심 축이다. 지난 10여 년간 추진해 온 제조업 육성 정책인 'Make in India'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과 맞물리며 인도는 새로운 생산기지로 부상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단순 생산기지로서의 역할만으로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제한적이고, 핵심 부품 및 원자재에 대한 대외 의존도도 낮추기 어렵기 때문에 최근 인도 정부의 정책 초점은 기존 제조업 기반을 활용해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고 관련 밸류체인을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단순한 생산 이전 효과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기반 확대, 전략산업 자립도 제고로 연결하기 위함이다.

둘째, 인프라 개발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고성장 기조 지속을 뒷받침하는 기반이다. 인도가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물류비 절감, 전력 공급 안정화, 항만·철도·도로망 개선 등 생산 기반 전반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프라 투자는 단기적으로 경기 하방을 완충하는 수단인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제조업 생산성 향상과 글로벌 내 경쟁력 강화를 가능하게 하는 성장 기반으로 기능한다.

셋째, 재생에너지는 제조업 고도화는 물론 최근 중요성이 특히 높아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다. 인도는 제조업 비중 확대, 데이터센터 및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제조업 경쟁력의 필수 조건인 만큼 전력 수급 안정성은 점차 더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로 에너지 수입 경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에너지 지원인 재생에너지 확대의 정책적 필요성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종합하면, 최근 일본 및 러시아와의 회담은 인도 정부의 성장 전략이 첨단 제조업, 인프라, 재생에너지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 정책과 대외 협력의 방향성이 동시에 맞물리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분야의 정책 지속성과 투자 가시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2026년 07월 09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BUY (유지)

목표주가(12M) 20,000원
현재주가(7.08) 14,81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7,246.79
52주 최고/최저(원)	17,810/13,900
시가총액(십억원)	6,285.7
시가총액비중(%)	0.10
발행주식수(천주)	424,427.7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333.8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1.1
외국인지분율(%)	41.94
주요주주 지분율(%)	
LG 외 3인	38.75
국민연금공단	7.48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5,661.5	15,999.7
영업이익(십억원)	1,114.0	1,194.2
순이익(십억원)	712.7	782.4
EPS(원)	1,689	1,862
BPS(원)	21,834	22,978

Stock Price



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4,625.2	15,451.7	15,567.9	16,132.1
영업이익	863.1	892.1	1,118.4	1,183.6
세전이익	450.6	680.5	913.4	997.4
순이익	374.5	523.9	732.5	802.0
EPS	858	1,208	1,718	1,890
증감율	(39.83)	40.79	42.22	10.01
PER	12.04	12.19	8.73	7.93
PBR	0.52	0.71	0.69	0.65
EV/EBITDA	3.09	3.52	2.63	2.32
ROE	4.40	6.01	8.07	8.41
BPS	19,825	20,770	21,816	23,006
DPS	650	660	700	75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LG유플러스 (032640)

2Q 프리뷰 - 역대급 실적 달성 전망, 주가 너무 싸

매수 투자 의견/TP 20,000원 유지, 여기선 단기적으로도 매수가 맞습니다

LGU+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12개월 목표주가 20,000원을 유지한다. 더불어 SKT와 함께 7월 국내 통신서비스 업종 내 Top Picks로 제시한다. 추천 사유는 1)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우수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26년 연간 높은 연결 영업이익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졌고, 2) 2분기 실적 발표 전후 지난해 대비 증액된 자사주 매입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2027년 이후엔 다시 주주 환원 규모가 증대될 것이라 기대감이 확산될 것이며, 3) 정책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DPS 상승 흐름과 5% 육박하는 현재 기대배당수익률을 감안하면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큰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2027년 신규 5G 요금제 출시로 ARPU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음을 무시하더라도 현재 주가 수준에선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 투자 매력도 역시 높다는 판단이다.

2분기 연결 영업이익 3,219억원 전망, 탑라인/비용 구조 모두 완벽할 것

LGU+는 8/6일(목)에 2026년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3,219억원(+6% YoY, +18% QoQ)로 컨센서스(연결 영업이익 3,067억원)을 상회하는 우수한 실적 달성이 예상된다. 아마도 분기 연결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가장 큰 실적 호전 사유는 이동전화매출액 증가 추세 유지, 기업부문 매출 성장세 회복, 전분기비 마케팅비용 감소, 감가상각비/인건비 정체 기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 기저 효과가 아닌 탑라인/비용 구조 개선에 의한 실적 호전을 나타낼 전망이다. 투자자들로부터 훌륭한 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분기엔 인건비 및 제반 경비의 안정화 추세가 확연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연결 영업이익 증가 기대감을 높여줄 것이라 판단이다.

가격 메리트 커진 상황, 현 주가에선 매수가 정답

2026년 들어 LGU+ 주가가 장기 부진 양상을 진행 중이다. 가장 큰 원인은 요금제 업셀링 기대감 저하, 장기 주주 환원 증가에 대한 확신 부족 때문이다. 그런데 하반기 이후엔 근본적인 투자 심리의 변화가 나타날 공산이 크다. 2026~2027년 이익 성장에 대한 신뢰 회복과 더불어 AI RAN 본격 활성화에 따른 장기 요금제 업셀링 기대감, 자사주 매입/소각 물량 증가에 따른 주주 환원 규모 증가 기대감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주 환원 규모 증가 기대감 상승 시 4% 수준의 기대배당수익률도 충분히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어 현 주가 수준에서는 3개월 이상 투자한다는 전략하에 매수에 임한다면 의외로 양호한 성과를 달성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다.

Not Rated

현재주가(7.08)

91,7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7,246.79
52주 최고/최저(원)	113,200/70,900
시가총액(십억원)	6,489.4
시가총액비중(%)	0.11
발행주식수(천주)	70,767.4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07.4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7.3
외국인지분율(%)	54.56
주요주주 지분율(%)	
넋마블 외 8인	26.95
국민연금공단	7.51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5,571	6,197
영업이익(십억원)	999	1,141
순이익(십억원)	698	798
EPS(원)	9,921	11,365
BPS(원)	58,895	67,364

Stock Price**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3,856	3,967	4,310	4,964
영업이익	677	731	795	879
세전이익	683	661	784	812
순이익	458	471	566	618
EPS	6,208	6,386	7,664	8,558
증감율	(1.6)	2.9	20.0	11.7
PER	9.0	9.0	8.7	10.2
PBR	1.7	1.6	1.5	1.7
EV/EBITDA	3.9	3.8	4.2	5.3
ROE	19.8	17.9	17.7	17.1
BPS	32,046	36,464	44,532	51,784
DPS	1,300	1,350	2,630	1,957



Analyst 박중대 forsword@hanafn.com
RA 양정석 jsyang@hanafn.com

2026년 07월 09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코웨이 (021240)**돈보이는 동남아 사업 성장****2분기 영업이익 2,733억원(YoY 13%) 전망**

2분기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4%, 13% 성장한 1조 4,292억원과 2,733억원 수준이 가능할 전망이다. 시장 기대치(OP 2,652억원)를 넘어서는 양호한 수치다. 국내외 사업이 모두 좋다. 국내와 말레이시아(이하 말레이) 매출이 각각 YoY 11%, 22%까지 성장하면서 실적 개선을 견인할 전망이다. 국내 사업의 경우, 신규 렌탈 판매 호조로 2분기 렌탈 계정 순증은 23만(1분기 19만)에 이를 전망이다. 전년도 2분기와 비교하면 계정 순증은 YoY 43%, 렌탈 계정수 증가율은 YoY 13%에 이르는 높은 수치다. 말레이 법인 역시 전년도 높은 베이스에도 불구하고 YoY 22% 고신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경쟁이 완화되는 가운데, 정수기에 이어 매트리스, 에어컨으로 카테고리 확장이 예상된다. 이외 미국(매출 YoY -2% 추정)과 인도네시아(YoY 1%)는 부진하지만, 태국은 YoY 38%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 렌탈 사업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말레이/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이뤄내고 있다. 말레이의 경우 경쟁심화 국면이 마무리되고 2025년부터 코웨이의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수기는 엔트리 모델에서 얼음 정수기 등 고가 모델로 이동하고 있고, 매트리스와 에어컨 등 초기 매출 인식 비중이 높은 카테고리 판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수익성 제고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매트리스 신규 렌탈 판매가 분기당 3.5만개를 넘고 있으며, 에어컨은 1분기 2만대에서 2분기 3.5만대로 크게 뛰었다. 태국은 렌탈 계정수가 YoY 40%씩 증가하고 있다. 정수기를 중심으로 청정기, 전년도 4분기부터 에어컨으로 카테고리를 확장했다. 분기별 정수기 신규 판매가 4만대가 넘는다. 누적 계정수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도 5% 초중반까지 상승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분기까지 가전 인증제도 변경(정수기도 인증 제도에 신규 포함) 영향으로 부진했지만, 인증이 마무리되면서 6월부터 정수기 설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간 YoY 30% 성장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높은 성장 여력과 실적 가시성 대비 현저한 저평가

코웨이는 국내 렌탈 시장 압도적인 지위를 기반으로 동남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국내 렌탈 시장은 카테고리 확대 효과로 YoY 10% 내외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침대 위생에 대한 관심이 매트리스 렌탈로 이어지면서 코웨이는 국내 매트리스 1위 사업자가 됐다(2025년 판매 기준). 말레이에서는 에어컨 매출이 YoY 30% 이상 성장 중인데, LG전자보다 인지도가 높다는 평가다. 아울러, 최근 수처리(코웨이엔텍) 사업이 하이닉스 미국 반도체 공장 수처리 사업권을 따내면서 약 800억원 매출이 향후 2년에 걸쳐 추가될 수 있다. 현재 주가는 12MF PER 7.8배로 i) 국내외 절대적인 렌탈 시장 점유율, ii) 말레이 등 해외 사업 고신장과 iii) 높은 실적 가시성 등을 감안하면 현저한 저평가 상태다.

2026년 07월 09일 | 기업분석_ Earnings Preview

BUY (유지)

목표주가(12M) 62,000원 (하향)

현재주가(7.08) 30,15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7,246.79
52주 최고/최저(원)	90,300/23,500
시가총액(십억원)	1,081.2
시가총액비중(%)	0.02
발행주식수(천주)	35,862.1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02.5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7.8
외국인지분율(%)	9.21
주요주주 지분율(%)	
세아홀딩스 외 3인	62.66
국민연금공단	8.41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3,910.7	4,219.5
영업이익(십억원)	145.0	200.1
순이익(십억원)	88.5	119.0
EPS(원)	2,440	3,282
BPS(원)	55,464	57,461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3,636.1	3,651.6	4,054.0	4,238.4
영업이익	52.3	98.4	144.6	189.3
세전이익	23.2	87.8	116.2	159.0
순이익	20.2	56.2	84.3	118.7
EPS	564	1,567	2,350	3,309
증감율	(84.23)	177.84	49.97	40.81
PER	35.04	32.04	13.66	9.70
PBR	0.37	0.93	0.58	0.56
EV/EBITDA	9.15	12.72	8.36	7.08
ROE	1.04	2.89	4.29	5.85
BPS	54,089	54,192	55,467	57,576
DPS	1,200	1,200	1,200	1,200



Analyst 박성봉 sbpark@hanafn.com
RA 김승규 sgkim@hanafn.com

세아베스틸주 (001430)**최근 주가는 급락했지만 영업실적은 양호할 전망****2Q26 주력 자회사들 판매 증가로 영업실적 개선 예상**

2026년 2분기 세아베스틸주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1조원(YoY +12.9%, QoQ +12.6%)과 535억원(YoY +39.4%, QoQ +185.0%)으로 영업이익은 시장컨센서스인 505억 원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수기 효과와 더불어 일부 품목 내수 회복의 영향으로 세아베스틸의 특수강 판매는 45.4만 톤(YoY +5.8%, QoQ +10.1%)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비자동차용 특수강 제품 중심의 공격적인 가격 인상 정책으로 특수강 ASP가 5만원/톤 상승이 예상되나 전분기대비 스크랩가격 상승폭이 5만원/톤을 상회하며 스프레드는 소폭 축소될 전망이다. 한편, 세아창원특수강 또한 공격적인 영업전략으로 11.9만톤(YoY +3.0%, QoQ +17.6%)의 판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니켈가격 상승에 대응해 4월과 5월에 스테인리스(STS) 제품 가격을 각각 톤당 20만원과 10만원 인상에 나서면서 스프레드가 확대된 것으로 파악된다.

3분기는 비수기 영향으로 쉬어갈 전망

3분기는 계절적 비수기와 9월 추석 연휴 영향으로 세아베스틸의 특수강 판매는 41.0만톤(YoY +4.5%, QoQ -9.8%)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세아창원특수강 판매는 7.5만톤(YoY +3.0%, QoQ +21.5%)이 전망된다. 한편, 특수강 주원료인 고철 가격이 6월 보합 이후 7월 들어 하락세로 전환된 반면, 세아베스틸은 7월에도 일부 탄소강 및 합금강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섰기 때문에 3분기도 스프레드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감안하면 세아베스틸 주주의 3분기 영업이익은 327억원(YoY +21.3%, QoQ -38.9%)을 기록할 전망이다.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는 62,000원으로 하향

세아베스틸주에 대해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나 목표주가는 기존 89,000원에서 62,000원으로 하향하는데 목표주가는 12M FWD BPS에 목표 PBR 1.2배를 적용했다. 올해 자동차용을 비롯한 특수강 판매 회복이 기대되는 가운데 가을부터는 중국산 특수강에 대한 반덤핑 잠정 관세 부과가 예상되어 2027년 본격적인 수입산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연내 한수원으로부터의 CASK(사용후핵연료처리장치) 수주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되고 내년과 내후년에 걸쳐 미국내 특수합금 공장과 사우디 무게목강관 공장의 사업 본격화로 세아베스틸주 외형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07월 09일 | 기업분석_ Earnings Preview

BUY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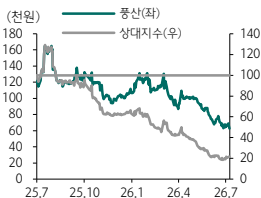
목표주가(12M) 110,000원(하향)
현재주가(7.08) 62,5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7,246.79
52주 최고/최저(원)	165,000/62,500
시가총액(십억원)	1,751.5
시가총액비중(%)	0.03
발행주식수(천주)	28,024.3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64.5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4.2
외국인지분율(%)	13.22
주요주주 지분율(%)	
풍산홀딩스 외 4인	38.02
국민연금공단	7.18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6,153.1	6,394.0
영업이익(십억원)	361.9	361.8
순이익(십억원)	251.2	248.8
EPS(원)	8,964	8,878
BPS(원)	91,621	98,862

Stock Price**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4,554.4	5,048.6	6,216.3	6,254.3
영업이익	323.8	297.4	392.4	352.0
세전이익	318.3	235.5	309.8	291.7
순이익	236.0	147.2	221.4	216.9
EPS	8,423	5,251	7,901	7,741
증감율	50.90	(37.66)	50.47	(2.03)
PER	5.93	20.28	8.34	8.51
PBR	0.63	1.29	0.74	0.69
EV/EBITDA	4.54	9.88	5.41	5.58
ROE	11.33	6.54	9.28	8.49
BPS	79,286	82,813	89,056	94,848
DPS	2,600	1,700	2,000	2,000



Analyst 박성봉 sbpark@hanafn.com
RA 김승규 sgkim@hanafn.com

풍산 (103140)**올해 예상 실적대비 과도한 저평가 구간****2분기 방산 부진, but 신동 호조 지속 전망**

2026년 2분기 풍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4조원(YoY +7.5%, QoQ +9.5%)과 837억원(YoY -10.6%, QoQ -7.2%)으로 영업이익은 시장컨센서스인 849억원에 거의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신동 판매량이 전분기대비 소폭 증가한 4.6만톤(YoY -2.2%, QoQ +4.6%)이 예상되는 가운데 2) 2분기 LME 전기동 평균 가격이 13,330달러/톤(YoY +40.0%, QoQ +3.8%)을 기록하며 대략 300억원 이상의 메탈 관련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한편, 방산의 경우 중동 전쟁에 따른 수출 선적 지연과 내수의 경우 국내 일부 고객사의 내부 사정에 따른 계약 지연 이슈로 당초 예상을 하회하는 1,900억원(YoY -45.0%, QoQ +21.3%)의 매출에 그칠 전망이다. 4) 동가격 상승으로 PMX를 비롯한 해외 신동 관련 자회사들의 수익성은 전분기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 동가격 상승과 방산 매출 대폭 확대 전망

1분기 평균 12,845달러/톤을 기록했던 LME 전기동 가격은 당초 예상과 달리 2분기에도 추가 상승하며 평균 13,330달러/톤을 기록했다. 특히 5월 중순에는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 1월말의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14,000달러/톤을 상회하기도 했다. 이후 미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 확대에 따른 미달러 강세로 가격 조정을 겪었으나 여전히 13,000달러 초·중반의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로 전기동을 포함한 주요 금속 가격이 하방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와 그와 관련된 전력망 구축에 따른 견조한 수요 하에 주요 광산들의 생산 차질, 동정광 T/C(제련수수료) 급락 및 중국 동 제련소들의 생산 축소 전망이 전기동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미국의 전기동 관세 부과 전망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3분기 평균 전기동 가격은 13,417달러/톤(YoY +37.0%, QoQ +0.7%)로 예상되고 2분기에 이어되었던 방산 매출이 3분기에 인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풍산의 3분기 영업이익은 945억원(YoY +121.8%, QoQ +12.8%)을 기록할 전망이다.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는 110,000원으로 하향

풍산에 대해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나 실적추정치 하향으로 목표주가를 기존 160,000원에서 110,000원으로 하향한다. 목표주가는 12M FWD BPS에 목표 PBR 1.2배를 적용했다. 올해 사상최고치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주가는 PBR 0.8배 수준으로 올해 예상 ROE 9.3% 감안 시, 저평가되었다고 판단된다.

Not Rated

현재주가(7.8) 17,30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785.00
52주 최고/최저(원)	34,350/17,300
시가총액(십억원)	189.0
시가총액비중(%)	0.04
발행주식수(천주)	10,925.7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17.6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3.3
외국인지분율(%)	1.33
주요주주 지분율(%)	
이종민 외 2인	28.02
장성식	6.91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59	202
영업이익(십억원)	1	9
순이익(십억원)	2	9
EPS(원)	174	842
BPS(원)	5,235	6,077

Stock Price



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70	74	94	73
영업이익	11	4	(17)	(28)
세전이익	7	3	(16)	(27)
순이익	5	4	(14)	(27)
EPS	672	439	(1,308)	(2,443)
증감율	114.0	(34.7)	적전	적지
PER	0.0	134.9	(26.3)	(11.7)
PBR	0.0	6.5	4.4	5.6
EV/EBITDA	0.0	104.9	0.0	0.0
ROE	156.7	3.7	(16.6)	(48.0)
BPS	419	9,158	7,825	5,085
DPS	0	0	0	0



Analyst 권태우 tkwon@hanafn.com
RA 윤채리 yoonchery@hanafn.com

2026년 07월 09일 | 기업분석_스몰캡_Report

에이직랜드 (445090)

하이닉스가 선택한 eSSD 파트너, 방향은 정해졌다

국내 유일 TSMC VCA 디자인하우스

에이직랜드는 2016년 설립된 디자인하우스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TSMC VCA(Value Chain Alliance)와 Arm 토탈 디자인 파트너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Spec-In 협의부터 설계·패키지·테스트·양산까지 포괄하는 툰키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은 AI-HPC 등 비메모리 ASIC과 eSSD·eMMC 등 메모리로 양분되며, 임직원의 80% 이상은 엔지니어로 구성된다.

SK하이닉스와의 협력 격상, 개발을 넘어 양산으로 이어지는 계약

6월 29일 동사는 SK하이닉스와 차세대 eSSD 컨트롤러 설계·테이프아웃(최종 설계 데이터를 파운드리에 전달하는 단계) 지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며, 메모리 컨트롤러 확장 전략이 수주로 확인되었다. 규모는 319억원(2025년 매출액의 43.7%), 기간은 2025년 5월 27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넘게 이뤄져 온 개발 프로젝트가 공식화된 성격이다. 핵심은 개발에 그치지 않고 양산으로 연결되는 계약 구조다. 테이프아웃은 PCIe Gen6 규격·5nm 공정 기준 7월 1일자로 완료되었고, 잔여 계약 기간은 칩 양산성 검증에 투입된다. 2028년 양산 개시가 기본 시나리오이나, 검증 일정 자체가 보수적으로 잡혀 있어 앞당겨질 여지도 있다. 향후 양산 단계에서는 마스터계약(기본 조건만 정하고 물량은 PO로 확정하는 계약)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일정 규모 이상 물량 확정 시마다 추가 공시가 뒤따르게 된다. 이번 계약은 단발성 개발 용역이 아닌, 반복 발주를 수반하는 장기 협력의 출발점에 해당한다. 글로벌 메모리 기업의 선단공정 프로젝트를 수행한 사례인 만큼, 차세대 라인업으로 확장 가능한 레퍼런스로 판단된다.

AI 데이터센터발 eSSD 수요, 순차 가동되는 양산 트랙

1Q26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SSD 상위 5개사 합산 매출은 184.6억달러(+86.1% QoQ)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TrendForce), 2026년은 엔터프라이즈 SSD가 NAND 최대 응용처로 올라서는 해로 예상된다. 시장 주력은 아직 PCIe Gen5이나, Gen6 물량은 내년 하반기 출시를 거쳐 2028년 본격 개화할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 컨트롤러 확보 경쟁은 제품 출시에 앞서 설계 단계에서 전개되며, SK하이닉스의 eSSD 컨트롤러 디자인하우스 채택은 Gen4 국내 A사, Gen5 대만 GUC를 거쳐 Gen6에서 동사로 이어졌다. 양산 트랙도 순차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eMMC 카드 컨트롤러는 양산 매출이 이미 발생 중이며, 연 400~500억원 이상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파두향 Gen6 컨트롤러는 6nm 공정으로 2027년 하반기 양산이 기대된다. 차기 Gen7 개발 건은 연내 계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이던스 상향과 흑자전환 예상, 양산 중심 전환의 초입

1Q26 매출액은 540억원(+242.4% YoY)을 기록했고, 영업적자는 30억원까지 축소되었다. 이번 계약분이 반영되며 2026년 매출 가이던스는 기존 1,6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된 것으로 파악되고, 연간 흑자전환이 예상된다. 2027년 파두향 양산에 이어 2028년 SK하이닉스향 본 양산이 더해지면 성장 기울기는 가팔라질 것이다. SK하이닉스향 단일 프로젝트 양산 매출 잠재력만 수천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만큼,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다. 현 주가는 테크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상태다. 향후 실적 성장을 고려하면 국내 피어 대비 저평가로 판단되며, 구조적 변화의 방향성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2026년 7월 9일 |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BUY (유지)**NC (0365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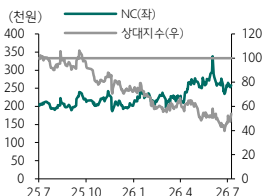
목표주가(12M) **420,000원**
 현재주가(7.08) **258,500원**

현재도, 미래도 밝다**Key Data**

KOSPI 지수 (pt)	7,246.79
52주 최고/최저(원)	338,000/187,000
시가총액(십억원)	5,569.1
시가총액비중(%)	0.09
발행주식수(천주)	21,544.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54.3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41.8
외국인지분율(%)	36.88
주요주주 지분율(%)	
김택진 외 15 인	12.37
국민연금공단	11.08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2,642.0	3,002.0
영업이익(십억원)	504.4	593.4
순이익(십억원)	474.4	511.1
EPS(원)	21,384	23,300
BPS(원)	195,158	217,768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578.1	1,506.9	2,803.6	3,167.5
영업이익	(109.2)	16.1	538.9	625.6
세전이익	120.9	461.4	630.9	668.4
순이익	94.2	346.7	486.5	511.6
EPS	4,291	16,023	22,582	23,746
증감률	(55.59)	273.41	40.93	5.15
PER	42.67	12.58	11.45	10.89
PBR	1.04	1.08	1.23	1.13
EV/EBITDA (76,163.9)	24.16	5.25	4.09	
ROE	2.99	10.79	13.46	12.60
BPS	175,362	187,076	210,221	228,544
DPS	1,460	1,150	6,000	6,500



Analyst 이준호 junholee95@hanafn.com

2Q26 Pre: 컨센서스 소폭 상회 전망

NC는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수익 6,846억원(+79.0%YoY, +22.8%QoQ), 영업이익 1,345억원(+79.2%YoY, +18.7%QoQ)으로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할 전망이다. 2분기 PC/콘솔 부문 매출액은 3,330억원(+263.1%YoY, +4.6%QoQ)으로 예상된다. [아이온2]의 2분기 매출액은 889억원, 일매출은 약 10억원으로 추정한다. 1분기 대비 감소했으나 7월 챗터 2로 반등을 기대한다. [리니지 클래식]의 2분기 매출액은 1,575억원, 일매출 약 18억원으로 추정한다. 콘텐츠, BM 업데이트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분기 모바일 부문 매출액은 1,826억원(-16.6%YoY, -0.1%QoQ)으로 추정한다. [리니지 M/2M/W]가 큰 특이사항 없이 하향 안정화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영업비용은 5,501억원(+49.8%YoY, +23.9%QoQ)으로 예상된다. 인건비는 2,544억원(+33.4%YoY, +4.3%QoQ)으로 추정한다. 저스트플레이 인수와 [리니지 클래식] 성과금을 반영했다.

아이온2 글로벌 9월 출시 예정

NC는 2026년 영업수익 2조 8,036억원(+86.0%YoY), 영업이익 5,389억원(+3,251.3%YoY, OPM 19.2%)을 기록할 전망이다. [리니지 클래식]의 고무적인 성과에 9월 [아이온2 글로벌]의 출시가 더해질 예정이다. [아이온2 글로벌]은 올해 2,010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한다. 자체 퍼블리싱, MMORPG 장르의 글로벌 수요에 대한 우려로 현재 눈높이는 올라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8월부터 본격적인 마케팅 효과가 확인되면서 기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출시 이후 온기로 반영되는 4분기부터 실적 견인을 전망한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420,000원 유지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420,000원, 게임 산업 Top Pick을 유지한다.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라인업만으로도 2027년까지 증익이 확실한 상황이다. 현재 12MF P/E 11배 이하의 주가 수준은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한다. 6월 SGF에서는 [길드워3]를 최초로 공개했다. [길드워3] 이후 15년만의 공식 후속작이며 PC/PS5 동시 출시 예정이다. 2027년 가을 베타 테스트 계획하고 있기에 2028년 출시를 예상한다. [리니지 클래식], [아이온2]가 국내 기반의 높은 성과였다면 2026년 9월 [아이온2 글로벌], 2027년 [호라이즌 스틸 프론티어즈], 2028년 [길드워3]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를 확인하게 될 전망이다. 명확히 기업의 이익 체력이 좋아 짐과 동시에 글로벌향 로드맵도 그려졌다. 비중을 확대해야 할 시기다.

2026년 7월 9일 | 기업분석

BUY (유지)

목표주가(12M) 9,000원
현재주가(7.08) 5,17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7,246.79
52주 최고/최저(원)	6,200/3,550
시가총액(십억원)	2,763.7
시가총액비중(%)	0.05
발행주식수(천주)	534,569.5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432.2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8.9
외국인지분율(%)	17.08
주요주주 지분율(%)	
하림지주 외 10인	54.91
국민연금공단	8.61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6,030.9	6,143.7
영업이익(십억원)	577.9	602.8
순이익(십억원)	392.0	438.4
EPS(원)	733	820
BPS(원)	11,377	12,100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5,161.2	5,432.9	6,568.6	6,851.9
영업이익	471.2	491.9	601.8	603.5
세전이익	282.1	318.2	407.0	429.1
순이익	268.1	301.4	386.7	407.7
EPS	502	564	723	763
증감율	9.61	12.35	28.19	5.53
PER	6.57	6.83	7.15	6.78
PBR	0.31	0.36	0.45	0.43
EV/EBITDA	4.77	5.15	4.91	4.72
ROE	5.17	5.30	6.54	6.50
BPS	10,576	10,707	11,430	12,033
DPS	120	150	160	160



Analyst 안도현 dohyunahn@hanafn.com

팬오션 (028670)

2Q26 Pre: 너무 쌉니다

2분기 영업이익 1,607억원 전망

팬오션 2분기 매출액은 해상운임 상승과 환율 효과로 24% (YoY) 증가한 1조 6,080억원으로 전망한다. 벌크선 매출액이 28% (YoY) 증가한 1조 300억원, 벌크선 영업이익은 14% 증가한 600억원으로 예상한다. 컨테이너선 영업이익은 운임 상승으로 12% (YoY) 증가한 170억원, LNG선은 전분기와 유사한 480억원으로 추정한다. 탱커 사업부의 증익폭이 컸는데, 전쟁 이후 탱커 수요가 West 위주로 증가하면서 이익 증가를 견인했다. 2분기 탱커사업부 영업이익을 350억원(+116% (YoY))로 추정한다. 전 사업부 증익 효과가 나타나며 전체 영업이익은 1,607억원(+31%, 10.0%)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연간 영업이익 6,020억원으로 추정치 상향

BDI가 최근 단기 조정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BDI의 하방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2026년 벌크선은 2022년과 유사한 수준의 강세장으로 진입했다. 전쟁으로 인한 채고 축적 수요와 유가 상승, 선박 가격 상승 등이 벌크선 운임에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컨테이너선도 3분기까지는 호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장기계약된 LNG선대의 수익력은 1분기와 유사할 예정이다. 탱커 운임이 관건인데, 현재 VLCC 운임은 상승 중이나, MR/Chemical 탱커 운임은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는 2분기 대비로는 소폭 감익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3분기 영업이익은 1,560억원(+24% (YoY))로 전망하고, 2026년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6,020억원(+22% (YoY))으로 상향한다.

에너지 수송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과도한 저평가 상태

팬오션이 SK해운으로부터 매입한 VLCC가 순차적으로 인도되고 있다. 팬오션은 추가로 VLCC 6척을 신조발주하면서 에너지 수송 쪽으로 본격 확장 중이다. 장기적인 트랙레코드가 필요한 에너지 수송의 특징 상 장기 계약으로 물꼬를 트고, 순차적으로 스팟 시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벌크부문의 안정적 수익성에 더해 에너지 수송으로의 확장성까지 고려하면 현재 주가는 P/B 기준 0.44배로 과도하게 저평가된 상태이다. 팬오션에 대해 목표주가 9,000원과 투자의견 BUY를 유지한다.

2026년 7월 9일 | Global Equity

버라이즌(VZ US)

내년 이후 CAPEX 확대에 주목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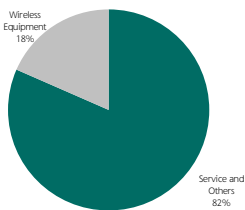
미국

TP(컨센서스) 51.56(USD)
CP(7.7) 42.59(USD)

Key Data

국가	UNITED STATES		
상장거래소	New York		
산업 분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주요 영업	다양한 전기통신 서비스		
홈페이지	www.verizon.com		
시가총액(십억EUR)	177.8		
시가총액(조원)	268.1		
52주최고/최저(EUR)	51.68/38.39		
주요주주 지분율(%)			
VANGUARD GROUP INC	9.11		
블랙록	8.81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6.1)	6.1	(1.1)
상대	(7.8)	(2.3)	(21.6)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134,788	138,191	142,531	144,581
영업이익	28,686	29,259	33,505	35,170
순이익	17,506	17,174	20,176	21,261
EPS(EUR)	4.8	4.9	4.9	5.2
EPS(YOY, %)	4.6	2.7	1.1	6.0
ROE(%)	18.3	16.9	19.0	19.3
PER(배)	8.4	8.3	8.6	8.1
PBR(배)	1.7	1.6	1.6	1.5
배당률(%)	6.7	6.6	6.6	6.8

자료: Bloomberg, 마나증권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버라이즌 중장기 투자매력도 높음, 연말 이후 실적과 멀티플 개선 전망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버라이즌의 투자매력도가 높다고 판단한다. 1) AWS-3 재경매 낙찰금액 35억달러 중 31억달러 분량을 버라이즌이 매입하며 사실상 중대역에서 황금 대역폭 구축에 성공했고, 2) 추가적으로 C밴드 및 신규 주파수 확보를 통한 우량 가입자 유치 및 서비스 매출 향상이 기대되며, 3) T-Mobile의 스프린트 인수 사례로 보면 주파수 매입 및 우량 가입자 확보가 향후 멀티플 확장으로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하반기 버라이즌의 CAPEX 확대 계획 발표가 실적과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어퍼 C 밴드 경매가 버라이즌 실적 반등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빠르면 올해 연말 이후 버라이즌 펀더멘탈 개선이 기대된다. 신규 주파수 확보를 통한 매출 개선과 멀티플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버라이즌의 매출액 및 후불 가입자 성장세는 정체되어 통신3사 중 가장 열위에 있는데, 로우~미드 밴드에서 경쟁사 대비 대역폭이 부족하여 망 품질저하가 발생한 탓이다. 실제로 버라이즌의 다운로드 속도는 T-Mobile(245.48Mbps)에 크게 못 미치는 116.34Mbps에 불과하며, 5G 사용자 중 절반 가까이 끊김 현상을 겪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에코스타의 AWS-3 잔여 주파수 매입을 시도하고, AWS-3 재경매 주파수 전략을 사실상 독점 확보하며 품질을 향상 중인만큼 실적 반등이 예상된다. T-Mobile 사례를 보면 그렇다. 지난 2020년 T-Mobile은 스프린트를 인수하며 주력 대역폭(2.5GHz)과 우량 고객을 대거 확보했는데, 그 덕에 현재까지도 망 경쟁력 및 가입자 유치에서 경쟁사 대비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면 버라이즌 역시 AWS와 AWS-3 황금 대역폭을 구축했고 C밴드 경매에 참여할테니, 대규모 우량 가입자 유치가 기대된다.

이른 시일내 버라이즌 CAPEX 확대할 것, 국내 무선통신장비주가 수혜주로 부상

역으로 보면 버라이즌은 주파수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ARPU, 후불 가입자, 배당가능이익 역전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버라이즌의 AWS-3 확보 동향을 보면 최소한 현 상황을 타개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맞고, 다가올 C 밴드 경매에 적극 참여 및 CAPEX 확대를 추진할 공산이 매우 크다. 그런데 버라이즌의 주파수 전략과 미국 정책을 감안하면 국내 무선통신장비주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버라이즌이 오픈랜을 정책적으로 지원중이고, 미국의 중국 제재로 인해 과거와 달리 중국 대북과기, 우한판구 등 주요 경쟁사 진입이 차단되었으며, 저대역폭 및 2GHz 위주로 5G 상용망을 갖춘 중국과 달리 국내 업체들은 4GHz 이상 대역폭에서 경쟁력을 갖춰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경매 종료 수개월 이내~빠르면 경매 진행 중에도 장비 POC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시 연말연초에는 버라이즌이 CAPEX 증액을 발표할 테니, 하반기 중 국내 무선통신장비주 주가 상승이 전망된다.

2026년 7월 8일 | Global Equity

중국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유니트리 IPO가 이끌 재평가

정부가 제시한 휴머노이드 10만대 시대

7/6 중국 공업정보화부(MIT)는 2026년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량이 1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밝혔다. 이는 2025년 중국 로봇 출하량인 1.5만대에서 크게 증가한 수준이며 기존의 시장 전망치인 5만대의 2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완성 로봇 업체뿐 아니라 핵심 부품 업체들의 중장기 성장 가시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리더드라이브와 에스톤, 실적과 사업 재편이 이끈 차별화된 주가 흐름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밸류체인 기업의 매출은 아직 대부분 기존 유압 및 자동차 부품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높은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업의 주가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실적 개선과 휴머노이드 사업 확대가 동시에 확인된 리더드라이브(YTD +110%)와 에스톤(YTD +86%)만이 차별적인 주가 흐름을 나타냈다. 다만, 리더드라이브와 에스톤의 주가는 현재 12MF P/E 기준 각각 436배, 168배 수준으로 단기적으로는 높은 밸류에이션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리더드라이브는 중국 휴머노이드 산업 확대에 따른 하모닉 감속기 수요 증가의 직접적인 수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리더드라이브의 하모닉 감속기 생산 능력은 올해 2배 이상 확대되며 중국 휴머노이드용 하모닉 감속기 시장 점유율은 9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글로벌 베어링 및 정밀기계 부품 제조업체인 SKF와의 합작법인을 설립해 글로벌 생산능력과 공급망 확보 기대가 더해지면서 단순한 중국 부품 업체를 넘어 글로벌 공급업체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되고 있다. 에스톤 역시 기존 산업용 로봇 기업에서 휴머노이드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됐다. 에스톤은 7/2 자회사 Estun Cordoid(휴머노이드+협동 로봇)를 조기 편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기존 산업용 로봇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휴머노이드와 협동 로봇 중심으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유니트리 IPO 이후 산업 밸류에이션 재평가 예상

향후 WAIC 2026에서 주요 업체들의 신제품 공개와 상용화 로드맵이 제시될 예정이며, 유니트리 IPO 이후 산업 밸류에이션 재평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7/2 유니트리는 중국 과창반 상장 승인을 획득했고 7월 중 상장이 예상되고 있다. 유니트리는 IPO를 통해 42억 위안을 조달해 AI 모델 개발, 신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유니트리는 저가 전략을 기반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저변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플랫폼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유니트리 플랫폼을 활용한 알고리즘과 개발 도구, 애플리케이션 생태계가 확대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생태계까지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유니트리 상장으로 투자 수요가 완성 로봇 업체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확대에 따라 관련 부품 업체들의 주가 모멘텀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Analyst 송예지 yeajisong@hanafn.com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7/6	309,500	277,500	-10.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삼성물산 (028260.KS)	7/6	433,500	395,000	-8.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 수주 5조원·수주잔고 31.7조원으로 하이테크/데이터센터 중심 수주 모멘텀 지속 원전/SMR 수주 추진, 태양광 파이프라인 19GW 및 2030년 미국 5GW 운영자산 목표
KB금융 (105560.KS)	7/6	170,100	171,000	0.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분기 추정 순익 1.97조원으로 2조원에 육박해 지주사 설립 이후 분기 최대 순익 예상 홍콩 ELS 과징금 이슈 해소로 주주환원 확대 및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12450.KS)	7/6	1,175,000	1,041,000	-11.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 39.7조원 규모의 지상방산 수주잔고와 연내 수주 파이프라인 구체화 기대 7월 미 육군 자주포 현대화 사업 시제계약자 선정 기대감 부각
삼성중공업 (010140.KS)	7/6	23,500	21,150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가 LNG선 매출 비중 확대와 저가 물량 감소로 실적 개선세 본격화 수주 시점 구분에 따른 상선 건조 Mix, 연중 지속적으로 개선될 전망
삼양식품 (003230.KS)	7/6	1,111,000	1,146,000	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주·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을 상승으로 실적 성장 기대 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
키움증권 (039490.KS)	7/6	348,500	334,500	-4.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증시 거래대금 확대의 직접 수혜로 1분기 연결 지배주주순이익 4,764억원 기록 브로커리지 수수료와 신용융자 이자수익 증가가 실적을 견인
코스맥스 (192820.KS)	7/6	168,300	179,600	6.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선크림 성수기 효과와 중국·미국 법인 성장세가 맞물리며 실적 모멘텀 확대 기대 미국 법인 흑자전환 가능성과 K-뷰티 기반 신규 수주 확대 기대
이수화학 (005950.KS)	7/6	14,120	12,040	-14.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유일 NP-LAB 일관 생산 체계 기반으로 수급 타이틀 구간에서 반사이익 기대 황화리튬 사업 성장성 부각에 따른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7.02%	+3.70%p	+69.43%	+6.63%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기(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K하이닉스 (000660.KS)	7/6	2,425,000	2,076,000	-14.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2Q26 Preview 매출액 87.1조원(YoY +292.0%), 영업이익 67.6조원(YoY +638.0%) 전망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삼성증권 (016360.KS)	7/6	119,100	111,700	-6.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중시 거래대금 확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증가로 중심 실적 모멘텀 지속 기대 높은 배당성향과 주주환원 기조에 더해 리테일 고객자산 확대가 밸류에이션 재평가 요인
삼성생명 (032830.KS)	7/1	401,000	346,000	-13.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 판매 확대와 신계약 CSM 증가로 보험 본업의 이익 체력 개선 삼성전자 배당수익 및 자회사 연결 손익 증가로 투자손익 크게 개선
삼양식품 (003230.KS)	7/1	1,119,000	1,146,000	2.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주·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을 상승으로 실적 성장 기대 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
한국콜마 (161890.KS)	7/1	99,500	112,100	12.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디 브랜드의 글로벌 수출 확대, 선케어·스킨케어 주문 증가로 ODM 본업 성장성 강화 국내 법인 고성장과 고마진 제품 믹스 개선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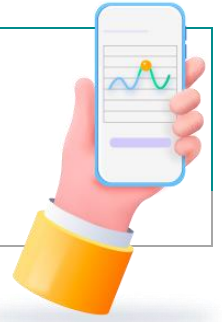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3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3.37%	+1.52%p	+43.85%	-18.99%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기(Loss cut)는 증가기준 -15%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반도체 (395160)	2026.02.27	29,560	43,965	4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KS)	2026.02.24	15,160	12,750	-1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29,690	1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18,835	4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581.45	7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된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DRAM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2026.6.22	80.72	60.59	-2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혁명 및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컴퓨터 메모리 및 스토리지 밸류체인 관련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한 순수 메모리 테마 ETF 광범위한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기존 ETF와 달리, HBM(고대역폭메모리) 및 차세대 DRAM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제조사에만 집중 투자하여 차별화된 고성능 모멘텀 수혜 기대
AIRR (미국 중소형 산업재)	2026.6.22	133.25	122.87	-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매출 비중이 높은(75% 이상) 중소형 제조업 및 산업재 관련 기업들로 구성 되어 실질적인 미국 제조업 부흥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ETF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리쇼어링(제조업 본국 회귀) 현상 가속화와 관세 구조 변화 등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 하에서 실질적인 인프라 건설, 기계, 엔지니어링 밸류체인 수혜 기대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3.23	75.80	86.69	1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증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7.5	7.6	7.7	7.8	7.9	7.10	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6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51.2, 이전치 51.3) 미국 6월 ISM 서비스지수 (54.0, 이전치 54.5) 유로존 5월 소매판매 (1.6%, 이전치 1.0%) 유로존 5월 PPI (5.8%, 이전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5월 선행지수 (116.8, 이전치 116.1) 일본 5월 동행지수 (118.5, 이전치 118.1) 미국 5월 수출 (-3.2%, 이전치 2.6%) 미국 5월 수입 (3.3%, 이전치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5월 BoP 경상수지 (\$38607 m, 이전치 \$28292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6월 공작기계 수출 (E --, 이전치 37.5%) 미국 FOMC 회의록 공개 미국 6월 기존 주택매매 (E 0.9%, 이전치 3.2%) 중국 6월 PPI (E 4.1%, 이전치 3.9%) 중국 6월 CPI (E 1.1%, 이전치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6월 PPI (E 6.8%, 이전치 6.3%) 미국 6월 기존주택매매 (E 0.9%, 이전치 3.2%) 	
7.12	7.13	7.14	7.15	7.16	7.17	7.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5월 광공업생산 F (E --, 이전치 -1.7%) 중국 6월 수출 (E 18.2%, 이전치 19.4%) 중국 6월 수입 (E 24.2%, 이전치 27.4%) 미국 6월 CPI (E 3.9%, 이전치 4.2%) 미국 6월 근원 CPI (E 2.9%, 이전치 2.9%) 미국 NFB소기업 낙관지수 (E --, 이전치 9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6월 수입물가지수 (E --, 이전치 24.8%) 한국 6월 수출물가지수 (E --, 이전치 46.9%) 한국 6월 실업률 (E --, 이전치 2.8%) 일본 5월 핵심기계수주 (E --, 이전치 15.6%) 중국 6월 소매판매 (E --, 이전치 -0.6%) 미국 6월 PPI (E --, 이전치 6.5%) 유로존 5월 산업생산 (E --, 이전치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기준금리 결정 (E 2.75%, 이전치 2.50%) 미국 베이지북 공개 미국 7월 NAHB 주택시장지수 (E --, 이전치 35) 미국 6월 소매판매 (E 0.0%, 이전치 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6월 주택착공건수 (E --, 이전치 -15.4%) 미국 7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P (E --, 이전치 49.5) 유로존 6월 CPI (E --, 이전치 2.8%) 유로존 6월 근원 CPI (E --, 이전치 2.4%)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